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관계: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 성 회¹⁾

정 옥 분²⁾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또래관계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또래관계 간의 관계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매개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한 5개 초등학교 5, 6학년 남녀 학생 479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관계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간에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과보호 총점, 과잉보호 및 불안, 어머니의 과잉기대, 과잉통제, 자율성 저해는 정서조절능력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과보호와 또래관계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보호의 하위요인 중 자율성 저해는 주도성, 협동/공감, 또래관계 총점과 부적 상관이 있었고, 과보호의 하위요인 중 과잉기대는 협동/공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과잉애정은 협동/공감, 또래관계 총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또래관계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은 협동/공감, 주도성, 또래관계 총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둘째, 어머니의 과보호가 아동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어머니의 과보호는 아동의 또래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서조절능력을 매개로 하여 아동의 또래관계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어머니의 과보호에 대한 지각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어 : 어머니의 과보호, 정서조절능력, 또래관계, 매개모형검증, 구조방정식

1) 고려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아동학전공, 석사

2) 교신저자 :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E-mail : obchung@korea.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이 성장해 감에 따라 아동의 대인관계 영역은 가족에게서 또래, 이웃, 학교 등으로 점차 확대되어 간다. 최근 들어 어머니의 취업이나 육아부담, 교육열 등으로 인해 어린이 집이나 교육기관에 다니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이 또래관계를 경험하는 시기가 빨라지고 또래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져 아동의 또래관계는 더 큰 중요성을 갖는다. 특히, 학령 후기 아동의 경우 또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특정 또래와의 친밀한 우정관계가 형성되면서 또래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된다. 또래관계는 아동의 사회정서적 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서(Shin, 2007), 아동기에 또래집단에게 수용되는 것은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과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도모하며(Bukowski & Hoza, 1989), 아동의 자기역량 지각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한중혜, 1996). 또한 아동기 대인관계의 질은 이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Gifford-Smith & Brownell, 2003; Kupersmidt, Coie, & Dodge, 1990). 즉, 아동기의 좋지 못한 또래관계는 학교에서의 중퇴, 청소년기 및 성인기의 범죄, 정신병리, 사회생활에서의 부적응을 예측한다(Mikami, Szewdo, Allen, Evans, & Hare, 2010; Parker & Asher, 1987). 따라서 긍정적인 또래관계 형성은 학령 후기 아동이 달성해야 할 주요한 과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아동은 출생 후 양육자와의 초기 상호작용

을 통해 세상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방법을 배워나가기 때문에 아동이 성장하는 환경은 아동의 또래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아동은 양육자와의 경험에 기초하여 내적 표상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표상은 상호작용을 하는 대상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대인간 행동에 대한 일정한 패턴을 제공해 줌으로써(Burks & Parke, 1996), 현재와 미래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이끄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Bargh, Lombardi, & Higgins, 1988). 특히 주양육자인 어머니는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90년대 이후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만혼 등과 같은 사회적 변화로 인해 한자녀 가정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한자녀 가정에서 자녀가 ‘골드 키즈(Gold Kids)’라고 불릴 만큼 가족 내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중산층 가정의 자녀양육에 대한 문제점들이 이슈화되고 있다. 요즘 흔히 들을 수 있는 ‘헬리콥터 부모’ ‘캐거루족’이라는 말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용어들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보호를 나타내는 것으로, 부모와 자녀가 제대로 분리되지 못해 부모가 자녀 스스로 처리해야 할 모든 과제를 미리 대신 처리해줌으로써 자녀가 자율적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기보다는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모습을 일컫는다.

Adler(1973)는 아동양육에서 가장 위험한 교육적 오류는 자녀를 과보호하여 응석받이나 버릇없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며, 과보호의 여러 모습 중 가장 큰 문제는 부모가 자녀의 주위를 돌면서 그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과보호

를 받은 아동은 자신이나 주변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해본 경험이 없어 발달단계에 적합한 과업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한다. 또한 과보호를 받은 아동은 자기애와 자기중심성이 강하고 협동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많은 좌절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김춘경, 2000; 박아청, 1998; 유형근, 1992). Doh와 Falbo(1999)는 과보호와 사회적 유능성 간에 부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아동이 과보호를 받을수록 사교적이지 못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며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주희의 연구(2000)에서도 어머니가 자녀를 과보호할수록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주도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여러 선행연구에서 과보호를 받은 아동들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못하며(문혁준, 2000; 신민경, 2003; 이지희, 문혁준, 2008), 사회적 능력이 낮거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재희, 주은선, 2002; Oh, 1989). 이를 통해 어머니의 과보호가 아동의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아동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보살피며, 아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등의 과보호는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정서의 사회화가 최초로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이다. 정서조절이란 과도한 긍정적인 정서나 부정적인 정서에서 유발된 부적절한 행동을 억제하고, 만족을 지연시키거나 충동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하며(Gottman & Katz, 1989), 자신의 정서경험을 사회적으로 수용되

는 방법으로 표출하는 능력도 포함한다(Cole, Michel, & Teti, 1994). 박서정(2004)은 정서조절능력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서표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에 적절하게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여기에는 정서적인 자극이 유발되는 상황에서 유연하게 전략적으로 대처하고 반응하는 능력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아동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화적 정서표출규칙을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서조절능력을 우선적으로 습득해야 한다(Shaffer, 1999).

과보호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과보호하는 부모는 자녀의 요구를 무조건 충족시켜주려 하기 때문에 자녀는 충동적으로 되기 쉽고(전풍자, 1989), 자녀를 세심하게 보호하여 자극에 매우 예민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녀는 침착하지 못하고 신경질적이기 쉽다(박아청, 1998). Parker(1979)는 부모의 과보호가 아동의 불안이나 우울, 보복적 공격성향을 높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장주연(2009)은 어머니의 과보호가 심할수록 자녀는 정서적 부적응 행동을 보인다고 보고하였으며, 임희수와 박성연(2002)은 어머니가 과보호적이며, 지시·통제적이고, 거부·적대적인 양육행동을 할수록 아동은 자신의 정서를 발산적이고 회피적이며 공격적인 방식으로 조절한다고 하였다. 도순희(2008) 또한 어머니가 자녀를 과보호할수록 자녀는 자신의 감정변화에 맞게 정서를 효율적으로 조절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살펴볼 때, 어머니의 과보호는 아동의 정서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은 또래관계에

서의 만족과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아동은 또래와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상황에 맞게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 이는 아동으로 하여금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체계적으로 판단한 후 대응할 수 있게 한다.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아동은 또래유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임연진, 2002). 또한 친구관계가 원만하며, 또래집단에 대한 소속감도 높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인다(박성연, 강지훈, 2005). 반면 정서조절능력이 낮은 아동은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며, 부정적인 또래관계를 보이고, 사회·정서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한유진, 2006; Eisenberg & Morris, 2002; Rose, 1991). 이러한 아동은 분노, 걱정, 슬픔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또래관계에서 직면하게 되는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한다(Fabes, Eisenberg, Jones, Smith, Guthrie, & Poulin, 1999). 하지만 자신의 정서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조절하는 것은 대인관계에서의 생산성을 높일 뿐 아니라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가능성을 증대시킨다(Thompson, 1994). Calkins(1994)는 정서적 각성을 처리하는 정서조절이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어머니의 과보호는 아동의 또래관계와 정서조절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은 아동의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추론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어머니의 과보호,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또래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에 이들 변인간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유사한 맥락의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와의 애착이나 어머니가 자녀를 대하는 방식이 정서를 매개로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일례로, Contreras와 동료들(2000)은 긍정적 정서조절 대처전략이 애착과 또래관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Seibert(2009)는 애착이 정서조절능력을 통해 또래유능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종각(2009)은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이 아동의 정서표현성을 통해 아동의 또래유능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또래관계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매개역할을 할 것임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어머니의 과보호가 아동의 또래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매개로 아동의 또래관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관계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또래관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과보호는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양육방식으로 나타났다(허혜경, 김혜수, 2004), 주로 양육태도의 한 유형으로 연구되었을 뿐 과보호만을 다룬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또래관계와 정서

조절능력이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과보호가 이들 변인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어머니의 과보호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관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대인관계의 폭이 보다 확대되고, 또래관계가 더욱 중요해지며, 정서조절능력이 급증하는 학령기 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과보호가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부모들에게 자녀의 정서조절능력과 또래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바람직한 양육 방향을 제시하여 부모들이 자녀를 보다 건강하고 적응력 있는 아동으로 양육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리고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을 중재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 1)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아동의 또래관계 간에는 관계가 있는가?
- 2)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은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또래관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강동구, 서대문구, 송파구, 강남구, 도봉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5,

6학년 15개 학급의 남녀 학생 479명이다.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되는 시기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진입하는 발달적 전환기이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479)

변인		대상자 수(%)	
성별	남	249	(52)
	여	230	(48)
학년	5학년	257	(53.7)
	6학년	222	(46.3)
출생순위	외동	76	(15.9)
	첫째	167	(34.9)
	막내	200	(41.8)
	중간	35	(7.3)
	무응답	1	(0.2)
어머니의 나이	30대	123	(25.7)
	40대	335	(69.9)
	50대 이상	16	(3.3)
	무응답	5	(1.0)
어머니의 최종학력	중졸 이하	11	(2.3)
	고졸	118	(24.6)
	전문대졸	19	(4.0)
	대졸	128	(26.7)
	대학원졸	92	(19.2)
	무응답	111	(23.2)
어머니의 직업유무	있음	310	(64.7)
	없음	167	(34.9)
	무응답	2	(0.4)
경제수준	상(잘 사는 편)	192	(40.1)
	중(보통)	265	(55.3)
	하(못 사는 편)	19	(4.0)
	무응답	3	(0.6)

이 시기의 아동은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욕구가 생기게 되고, 학교에서의 또래관계를 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대인관계에서의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고자 한다. 또한 이 시기는 정서조절능력이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발달상의 특징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관계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어머니의 과보호

어머니의 과보호는 정은영과 장성숙(2008)이 우리나라 어머니의 과보호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자녀가 직접 자신이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에 대해 평정하는 것으로, 과잉기대(부모의 과잉 교육 열로 인한 지나친 기대), 자율성 저해(부모의 지나친 간섭으로 혼자 할 수 있는 기회 박탈), 과잉통제(부모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 과잉보호 및 불안(자녀를 유아 취급하고 불안해하며, 지나치게 보호하고 돌봐줌)과 과잉애정(부모의 지나친 접촉과 허용 및 부모자녀간의 일체감)의 5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의 리커트형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높을수록 아동이 어머니의 과보호를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은영과 장성숙(2008)은 척도개발 시 전문가들을 통해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학령 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비조사를 통해 각 문항에 대한 이해도를 검토하였다. 본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88이다.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은 Shields와 Cicchetti (1995)가 개발한 ERC(Emotion Regulation Check List)를 박서정(2004)이 번안·타당화 하고, 이를 이경님(2009)이 아동평정용으로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경님(2009)은 박서정(2004)이 타당화한 정서조절능력척도 20 문항을 아동평정용으로 재구성하고,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총 19 문항이 선택되었으며, 부적응적 정서조절(11문항)과 적응적 정서조절(8문항)의 두 요인이 추출되었다. 부적응적 정서조절은 감정의 기복이 크고 자신의 정서를 효율적으로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적응적 정서조절은 상황에 맞게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공감능력이나 정서지각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의 리커트형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서조절능력의 총점을 산출하기 위해 부적응적 정서조절문항(2, 6, 8, 9, 11, 12, 14, 15, 17, 18, 19)은 역채점하였다. 정서조절능력의 총점이 높을수록 자신의 정서를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표현하며 적응하는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80이다.

아동의 또래관계

아동의 또래관계는 양윤란과 오경자(2005)가 개발한 또래관계기술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아동이 직접 평정하는 것으로 주도성과 협동/공감의 두 하위요인으로 나뉘며,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도성은 또래와 상호작용을 시작하거나 또래와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행동을 의미하며, 협동/공감은 또래를 돕거나 물건을 공유하거나 규칙을 준수하는 행동 및 또래의 감정에 관심을 가지거나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행동을 의미한다(양윤란, 오경자, 2005). 각 문항은 행동의 빈도를 묻고 있으며, ‘전혀 없었다’의 1점에서부터 ‘항상 그렇다’의 4점까지의 리커트형으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모든 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높을수록 또래관계 기술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양윤란과 오경자(2005)는 요인분석을 통해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관련 척도들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수렴 타당도를 입증하였다. 본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81이다.

3. 연구절차

2010년 10월 예비조사를 통해 척도에 대한 아동의 문항이해 정도와 절차상의 문제 여부, 소요시간 등에 대해 검토하여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10년 10월 22일부터 11월 8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아동들은 담임선생님의 지도하에 교실에서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488부는 모두 회수되었으며, 수집된 자

료 중 부실 기재되거나 미완성된 자료를 제외한 479부가 실제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분석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관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관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관계에 대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실시하였다. 모형 검증을 위해 추정된 모형이 관측된 자료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확인하고자 각 모형의 적합도와 변인 간 경로계수를 산출하였다. 이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 검증과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다. χ^2 통계량은 전반적인 적합도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측정치이며, 여러 적합도 지수들 가운데 유일하게 통계적 유의성 검증의 대상이 되는 측정치이다. χ^2 값이 작고 유의하지 않을 경우 모형이 적합하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χ^2 통계량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정옥분, 2010). 본 연구에서는 여러 적합도 지수 중에서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이용하였다. 왜냐하면, 이 지수들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TLI와 RMSEA의 경우 모형의 설명력과 함께 모형의 간명성도 고려하기 때문이다(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측정치들이 다변량 정규성 가정을 충족시켜야 한다. 각 변수들이 일변량 정규분포를 이루는 경우, 다변량 정규성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일변량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변인들의 첨도(kurtosis)와 왜도(skewness)값을 살펴본 결과,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연구결과

1.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관계 간의 관계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관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어머니의 과보호는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보호 총점($r=-.28, p<.001$), 과잉보호 및 불안($r=-.28, p<.001$), 과잉기대($r=-.26, p<.001$), 과잉통제($r=-.24, p<.001$), 자율성저해($r=-.23, p<.001$)는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어머니가 자신을 야기취급하고 불안해하며 지나치게 돌보고 있고, 자신에게 지나치게 기대하고 있으며, 자신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과하게 간섭한다고 지각할수록 아동은 자신의 정서를 효율적으로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과보호는 아동의 또래관계와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잉기대는 협동/공감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r=-.10, p<.05$). 즉, 아동이 자신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수준이 너무 높다고 지각할수록 또래와의 협동이나 규칙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또래의 감정에 관심이 없거나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성 저해는 협동/공감($r=-.16, p<.01$), 또래관계 총점($r=-.15, p<.01$),

표 2.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관계 간의 상관관계 ($n=479$)

		과보호					정서 조절 능력
		과잉 기대	자율성 저해	과잉 통제	과잉보호 및 불안	과잉 애정	
정서조절능력		-.26***	-.23***	-.24***	-.28***	-.04	-
또래 관계	주도성	-.02	-.11*	.07	-.05	.07	.45***
	협동/공감	-.10*	-.16**	.01	-.07	.10*	.56***
	총점	-.07	-.15**	.05	-.07	.09*	.56***

* $p < .05$, ** $p < .01$, *** $p < .001$

주도성($r=-.11, p<.05$)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아동은 어머니가 아동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빼앗는다고 지각할수록 또래와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또래와 협동하지 않거나 규칙을 지키지 않으며, 또래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잘 표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잉애정은 협동/공감($r=.10, p<.05$), 또래관계 총점($r=.09, p<.05$)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가 과하게 접촉하고 허용적이라고 지각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또래와 협동이나 공감을 잘하며,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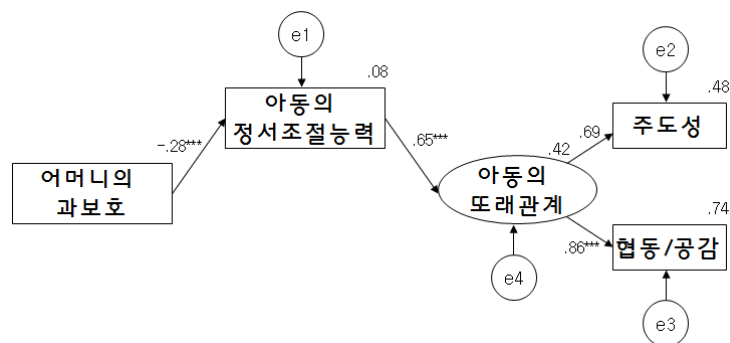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또래관계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은 협동/공감($r=.56, p<.001$), 또래관계 총점($r=.56, p<.001$), 주도성($r=.45, p<.001$)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아동이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를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을수록 또래와의 협동, 규칙 준수 및 공감을 잘하고, 주도성과 또래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관계에 대한 모형 검증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정서조절능력이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또래관계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기본모형을 추정하였다(그림 1 참조). 다음 단계에서 어머니의 과보호에서 아동의 또래관계로의 직접 경로를 추가하여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연구모형을 추정한 후, χ^2 검증을 사용해 기본모형과의 적합도 차이가 유의한지를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Sobel(1982)의 공식과 Bootstrap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정서조절능력이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또래관계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기본모형에서 추정된 경로를 살펴보면, 경로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3 참조). 즉, 어머니의 과보호는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아동의



*** $p < .001$

그림 1. 기본모형: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관계에 대한 완전매개모형

표 3. 기본모형의 경로계수와 유의도 검증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화 경로계수	S.E.	C.R.
과보호 → 정서조절능력	-.32 ***	-.28 ***	.05	-6.25
정서조절능력 → 또래관계	.54 ***	.65 ***	.05	10.99
또래관계 → 주도성	1.00	.69		
또래관계 → 협동/공감	1.02 ***	.86 ***	.09	11.83

*** $p < .001$

정서조절능력은 또래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기본모형이 수집된 자료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모형이 자료와 합치된다는 영가설이 기각되었으며($\chi^2 = 11.80$, $p = .003$), RMSEA에 의한 적합도도 .10으로 적합도가 우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적합도 지수는 TLI가 .93, CFI가 .98로 적절한 적합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기본모형에 어머니의 과보호에서 아동의 또래관계로 가는 직접경로를 추가하여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부분매개 변인으로 하는 연구모형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에 대한 경로계수는 표 4와 같다.

연구모형에서 추정된 경로를 살펴보면, 경로계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과보호는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은 또래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어머니의 과보호는 아동의 또래관계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정결과, 유의수준 .05에서 모형이 자료와 합치된다는 영가설이 채택되었다($\chi^2 = 1.13$, $p = .29$). 또한 다른 적합도 지수도 TLI가 1.0, CFI가 1.0, RMSEA가 .02로 이전 단계에서 추정된 기본모형보다 적합도가 높게 나타났다. 자유도가 하나 감소함에 따라 χ^2 값의 감소량이 임계치인 3.84보다 커야 적합도의 차이가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표 4.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와 유의도 검증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화 경로계수	S.E.	C.R.
과보호 → 정서조절능력	-.32 ***	-.28 ***	.05	-6.25
정서조절능력 → 또래관계	.59 ***	.69 ***	.05	11.48
과보호 → 또래관계	.14 **	.14 **	.04	3.23
또래관계 → 주도성	1.00	.70		
또래관계 → 협동/공감	.99 ***	.85 ***	.08	12.20

** $p < .01$, *** $p < .001$

타나 매개효과 ab 는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a 와 b 에 대한 개별검증에서도 두 경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적으로 Bootstrap 기법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여 유의확률을 추정한 결과 Lower Bound는 -.26, Upper Bound는 -.12, 유의확률은 $p < .01$ 로 나타나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어머니의 과보호는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부분매개로 하여 아동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과보호에 대한 지각이 또래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머니의 과보호가 아동의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머니가 과보호를 한다고 지각할수록 아동은 자신의 정서를 부적응적으로 조절하게 되고,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은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관계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또래관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관계 간의 관계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관계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보호 총점, 과잉보호 및 불안, 과잉기대, 과잉통제, 자율성 저해는 정서조절능력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즉, 어머니가 자신을 아기취급하고 불안해하며 지나치게 돌보고 있고, 자신에게 지나치게 기대하고 있으며, 자신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과하게 간섭한다고 지각할수록 아동은 자신의 정서를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조절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역기능적 정서조절능력과 정적인 관련이 있고(도순희, 2008), 어머니가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할수록 아동은 자신의 정서를 발산적이고 회피적이며 공격적인 방식으로 조절한다는 연구결과(임희수, 박성연, 2002)와 일치한다. 그리고 어머니가 심리적인 통제를 할수록 아동은 감정발산 및 회피와 같은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김희영의 연구(2010)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어머니의 과보호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을 저해시킨다는 윤영신의 연구(2007)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정서조절능력을 습득하는 데 있어 어머니의 양육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어머니가 자녀를 온정적이고 수용적이며 민감하게 대하고 적절하게 통

제하는 것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김숙형, 2004; 박서정, 2004; 오남희, 2008; Silverman & Ragusa, 1991) 그 정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됨을 의미한다. 일례로 아동은 실수나 실패를 했을 때 창피함 혹은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감정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극복 가능한 감정일 수 있다. 하지만, 과보호하는 부모들은 자녀의 불쾌한 감정을 미리 통제하거나 무시하기 때문에 과보호를 받은 아동은 부정적인 감정을 재해석하여 적응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할 기회를 잃게 된다. 아동의 성취에 대한 지나친 기대 또한 아동을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며(윤연정, 2009), 아동의 일시적인 욕구를 즉시 충족시켜 주거나 자율적인 행동을 심리적·환경적으로 통제하는 등의 어머니의 양육행동도 아동의 충동성을 키우고 아동을 신경질적이며 불안하게 만듦으로써 아동이 자신의 정서를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없게 한다. 반면, 부모가 유아의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 공감하고 지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 유아는 자신의 정서를 보다 긍정적인 방식으로 조절하게 된다(Tomkins, 1991). 아동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애정적이면서도 아동의 자율성을 고무하고, 적절하게 한계를 설정하며, 아동이 가진 능력 이상의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는 등의 올바른 양육에 대한 부모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과보호와 또래관계 간에는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보호의 하위요인 중 과잉기대는 협동/공감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가 지나친 교육열로 자신에게 과잉

기대를 한다고 지각할수록 아동은 또래를 돕거나 물건을 공유하거나 규칙을 따르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또래의 감정에 관심이 없고 자신의 감정을 잘 표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과보호를 받은 유아들이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고(신민경, 2003), 어머니의 과보호를 받은 아동은 사교적이지 못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며, 친구들에게 인기가 없다는 연구결과(Doh & Falbo, 1999)와 일치한다. 이는 아동이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어머니의 양육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부모의 기대가 적절할 때 아동은 낮은 공격성을 보이며 이타적으로 발달한다(Maccoby, 1980). 하지만 부모의 높은 기대는 자녀를 심리적·정서적으로 불안하게 하여 자녀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이는 결국 공격성으로 표출된다(윤연정, 2009).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업으로 인한 지나친 압력 및 스트레스 때문에 대인관계능력을 키우는 데 관심을 두지 못하며, 이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적절하게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권석만, 2000). 부모들 또한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인해 자녀에게 공부만 잘 하면 된다고 강조하며, 친구를 동반자가 아닌 뛰어 넘어야 할 경쟁자로 인식하게 만든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아동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과 협동하는 것이 어려우며, 타인의 감정에 관심을 가지는 것 또한 어렵다. 이러한 결과는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학교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배려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보다 성숙한 사회로 발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나친 경쟁은 지양하고, 아동이 각자의 능력에 맞게 성장해갈 수 있도록

록 지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율성 저해는 협동/공감, 주도성, 또래관계 총점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아동은 어머니가 아동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고 지각할수록 또래와의 관계에서 주도적이지 못하고, 또래와 협동하지 않거나 규칙을 지키지 않으며,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로부터 아기취급을 받은 유아가 또래관계에서 주도적이지 못하고(김미경, 2007), 어머니가 과보호할수록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주도적이지 못하다는 연구결과(박주희, 2000)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부모가 통제적이고 강압적인 양육행동을 할수록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받거나 사회적 유능성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Cohn, 1990; Cohn, Patterson, & Chciostopoulos, 1991)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는 자율성을 격려하는 어머니의 양육이 자녀가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나타낸다. 부모는 간섭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녀를 모니터링하고, 자녀가 또래와 놀이 활동을 만들고 놀이상황에서 발생하는 다툼을 스스로 해결하게 함으로써 자녀가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Ladd & Hart, 1992; Rubin, Bukowski, & Parker, 1998). 어머니가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함으로써 아동은 자신감을 갖게 되고, 이러한 자신감은 아동으로 하여금 새로운 관계를 탐색할 때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행동하게 한다. 하지만 과보호를 받은 아동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본 경험이 부족하여 의존적이고 열등감이 많아 또래관계에서 수동적이고 뒤로 물러서게 된다. 너무 수동적이어서 자기주장을 내세우

지 못하는 아동은 자존감을 상실하고, 결과적으로 또래의 존중을 받지 못하게 되어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아동은 놀이를 통해 공유하기와 협상하기를 연습할 수 있는데(Kostelnik, Whiren, Soderman, & Gregory, 2009), 과보호하는 어머니는 놀이 중에 생기는 문제들을 어머니가 미리 통제하고 중재하여 아동이 함께 나누고 협상하는 능력을 키울 기회를 빼앗음으로써 아동의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과잉애정은 협동/공감, 또래관계 총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아동은 어머니가 과하게 접촉하고 허용하며, 자신과 일체감을 갖는다고 지각할수록 또래를 잘 돕거나 규칙을 잘 따르며, 또래의 감정에 관심이 많고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과보호를 받은 아동들이 또래관계가 좋지 않다는 선행연구(문혁준, 2000; 신민경, 2003)와는 상반되지만, 과보호를 많이 받은 유아들이 친사회성이 높다고 보고한 김미경의 연구(2007)와 맥을 같이한다. 여러 연구에서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으로 하여금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이외영, 2002; 정미경, 2002; 진문주, 2010; 최진희, 2010). 부모의 온정적인 양육은 아동의 자신감을 높이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하는데(Putallaz & Heflin, 1990), 이러한 요인이 아동의 긍정적인 또래관계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로부터 부모역할에 있어 자녀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과 돌봄 그리고 희생을 중요시 해왔으며, 부모와 자식 간에 높은 동일체감이 형성

되어 있다. 따라서 아동이 어머니의 지나친 애정을 자신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지각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비슷한 맥락에서 어머니의 과잉애정에 대한 지각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했다는 결과(장혜정, 2010)가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로 추정된다. 하지만, 아직 과보호 및 과잉애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후속연구를 통해 좀 더 보강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또래관계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은 협동/공감, 주도성, 또래관계 총점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아동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정서 표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를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표현하며 적응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주도적이고 또래와 협동이나 공감을 잘 하는 등의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높다. 이는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높을수록 또래와의 관계에서 유능하거나 잘 수용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강나현, 2009; 김현나, 이경님, 2008; 임연진, 2002; 전정미, 유미숙, 2006; 허애수, 2003; 황혜정, 1999). 그리고 자신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이러한 정서를 사회적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아동은 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경험하며, 또래에게 인기가 있고(Rubin, Bukowski, & Parker, 2006), 또래와 성공적인 관계를 맺는 아동들은 정서를 잘 조절하는 기술

을 가졌다는 연구(Underwood, 1997)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나타낸다. 다른 사람의 정서에 대한 인식은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상호작용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다른 사람의 정서에 대한 이해는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게 하여 또래와 어울리기 쉽게 한다(Kail, 2006). Eisenberg, Fabes 및 Spinrad(2006)는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할 수 있고 긍정적 정서를 가진 아동은 다른 사람에 대한 동정심을 더 많이 나타낸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서조절을 잘 하는 아동은 동정심으로 유발된 친사회적 행동으로 인해 또래와 보다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자신의 정서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조절하는 것은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가능성을 높여(Thompson, 1994) 또래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결하게 함으로써 또래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끄는 것으로 추측된다.

2.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관계에 대한 모형 검증

어머니의 과보호가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어머니의 과보호는 아동의 또래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서조절능력을 매개로 하여 아동의 또래관계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과보호를 한다고 지각할

수록 아동은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과보호가 또래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과보호를 많이 받은 유아들이 친사회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김미경, 2000)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지만 과보호를 받은 아동들이 또래관계가 좋지 않다는 선행연구(문혁준, 2000; 신민경, 2003)와는 상반된다. 이는 모형검증에서 과보호의 하위요인별 점수를 사용하지 않고 총점을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과보호의 하위요인 중 또래관계와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과보호를 다룬 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확신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과보호의 어떤 측면들이 또래관계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통합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어머니의 과보호에 대한 지각은 아동이 자신의 정서를 부적응적으로 조절하게 하며, 정서가 불안정하거나 상황에 부적절한 정서표현을 하는 것과 같은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은 아동이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게 만든다. 즉, 어머니의 과보호는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매개로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어머니의 과보호가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정서조절능력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또래유능성에 대한 아동의 정서성, 정서조절능력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영향을 살펴본 이지희와 문혁준의 연구(2008)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들의 연구에서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진 변인은 아동의 타인조절능력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자기조절능력, 긍정

적 정서성, 어머니의 온정·격려 순으로 나타나 아동의 또래유능성에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같은 외적인 요인보다 아동의 정서성, 정서조절능력과 같은 아동의 내적 요인이 보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조인영의 연구(2007)에서도 사회적 유능성에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그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보고되어 사회적 유능성에 어머니의 양육태도보다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아동이 원만한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정서조절능력이 보다 중요함을 보여준다. 아동이 자신의 정서상태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정서를 조절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또는 의도 등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기초적인 수준에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다(Saarni, 1999).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자신의 정서적 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하면, 아동은 현재와 이후의 삶 모두에서 정신병리적인 문제를 겪을 위험에 놓이게 된다(Denham, 2007). 따라서 아동의 긍정적인 또래관계 형성을 위해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조절능력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강나현(2009)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또래수용성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의 매개적 역할을 탐색하였으나 그 결과가 유의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즉,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아동의 또래수용성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또래수용성 간의 관계는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와는 일치되지 않는 결과로 양육태도에 대한 개념과 측정도구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강나현(2009)은 부모의 전체적인 양육행동을 측정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과보호만을 측정하였고, 또래관계의 측정도 또래가 평정하는 또래수용성과 자신이 평정하는 또래관계기술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산출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아직 양육행동과 또래관계 간의 관계에서의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추측에 대해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앞으로 이와 관련하여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과보호가 나날이 심각성을 더해가는 현 시점에서 과보호를 중심으로 하여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서조절능력과 또래관계를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아동의 또래관계에 있어서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의 중요성을 재인식시켰으며, 어머니의 과보호와 또래관계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의 매개적 역할을 경험적으로 증명함으로써 정서조절능력의 중요성을 밝혔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끝으로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의 5개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의 표본을 근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에서 표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학령 후기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연령층을 다양화하여 어머니의 과보호와 자녀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관계 간의 관계를 분석해본다면, 연령에 따른 발달적인 변화에 대한 자료 또한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과보호만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과보호와 자녀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관계 간의 관계도 함께 살펴본다면 이들의 관계에 대해 보다 통합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과보호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과보호 척도는 한국적 상황에 맞는 과보호를 측정하기 위해 만 12세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이다. 학령 후기 아동에게 적용하기 위해 초등학교 아동에게 각 문항에 대한 이해도를 검토하였다 할지라도 원칙도의 개발 대상이 청소년이기에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를 측정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과보호 연구는 주로 Parker(1979)의 PBI(Parental Bonding Instrument)를 이용하여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PBI는 우리문화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부모의 양육태도를 과거의 기억에 의존하여 측정한다는 한계가 있다(정은영, 2008). 그 외에 Doh와 Falbo(1999)와 정채숙(2002)이 개발한 과보호척도가 사용되고 있으나 전자는 아기취급행동과 보호적 행동 두 요인만을 측정하며, 후자는 통제적인 측면에만 국한되고 타당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과보호를 제대로 측정하기 어렵다. 과보호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보호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과보호 척도의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모형검증에서 과보호 총점을 사용함으로써 과보호가 또래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또래관계를 또래관계기술척도로 측정하였다. 또래관계기술척도는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자신의 의도와 행동은 타인에게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으므로 또래가 평정하는 척도를 함께 사용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고 분석해보는 것도 긍정적인 또래관계 형성을 위해 개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나현 (2009).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또래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권석만 (2000). 인간관계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미경 (2007). 어머니와 유아의 분리불안,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 및 유아의 또래유능성.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숙형 (2004).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공격성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재희, 주은선 (2002). 지각된 양육태도의 세대간 연구와부적응 청소년 집단과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4), 1-17.
- 김춘경 (2000). 부모의 과잉보호가 아동의 성격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개인심리학적 분석. 놀이치료연구, 4(1), 35-49.
- 김현나, 이경님 (2008). 성별에 따른 유아의 기질, 정서조절능력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유아의 또래유능성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3(5), 71-92.
- 김희영 (2010). 어머니의 통제 및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공격성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도순희 (2008). 부모의 훈육방식과 역기능적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정서조절력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차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혁준 (2000). 또래 수용도와 부모 양육태도: 인기아와 고립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7), 39-52.
- 박서정 (2004).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 전략 및 정서 조절능력간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박성연, 강지훈 (2005). 남·여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6(1), 1-14.
- 박아청 (1998). 과보호의 발달심리학적 의미에 대한 일고찰. 인간발달연구, 5(1), 53-72.
- 박주희 (2000).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

- 리전략.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 논문.
- 신민경 (2003).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양육행동 및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양윤란, 오경자 (2005). 또래관계기술척도의 개발: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학생용.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4), 961-971.
- 오남희 (2008). 부와 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유형근 (1992). 부모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인성 특성과 학급 내 사회성 수준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윤언정 (2009). 부·모의 심리적 통제, 과잉기대 및 청소년의 자기애와 공격성 간의 인과적 관련성.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윤영신(2007).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 관련변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이경남 (2009). 아동의 정서표현과 아동의 기질 및 자아존중감이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8(6), 1209-1219.
- 이외영 (2002). 부모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종각 (2009).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 명령적 언어통제유형 및 유아의 정서표현성, 또래 유능성간의 경로분석.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지희, 문혁준 (2008).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 및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생활과학연구논집, 25(1), 75-95.
- 임연진 (2002).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또래 유능성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 113-124.
- 임희수, 박성연 (2002).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3(1), 37-54.
- 장주연 (2009).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와 부적응적 사고 및 정서적 적응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장혜정 (2010). 청소년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과보호가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에 미치는 영향. 동신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전정미, 유미숙(2006).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정서지능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7(3), 225-240.
- 전풍자 (1989). 교회교육 지도자들을 위한 전문지/가정교육: 중산층 가정의 자녀교육의 문제 (2) - 과보호 되는 아이들 -. 교육교회, 155, 297-301.
- 정미경 (2002).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정옥분 (2010). 아동연구와 통계방법. 서울: 학지사
- 정은영 (2008). 과보호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정은영, 장성숙 (2008).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

- 니의 과보호 척도 개발: 탐색적 요인분석
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293-312.
- 정채숙 (2002).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
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조인영 (2007).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유아의 정
서조절능력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
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진문주 (2010).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자기조절능력과 또래관계와의 관계. *창
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최진희 (2010). 중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
육태도와 또래관계의 연구. *경희대학교 교
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한유진 (2006).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
성 및 또래관계의 질. *아동학회지*, 26(4),
85-100.
- 한종혜 (1996).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역
량 지각 및 자아존중감. *경희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허애수 (2003).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의 태도 및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또래 유
능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
구논문*.
- 허혜경, 김혜수 (2004). *청년 발달 심리학*. 서울:
학지사.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에 있어서 적
합도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 심리학회
지: 임상*, 91(1), 161-177.
- 황혜정 (1999). 아동의 정서지능 발달과 정서
행동 문제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초
등교육연구*, 13(1), 51-69.
- Adler, A. (1973). *Der sinn des lebens*. Frankfurt/M.
- Bargh, J. A., Lombardi, W. J., & Higgins, E. T.
(1988). Automaticity of chronically accessible
constructs in Person×Situation effects on
person perception: It's just a matter of tim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599-605.
- Bukowski, W. M., & Hoza, B. (1989). Popularity
and friendship: Issues in theory, measurement,
and outcome. In T. J. Berndt, & G. W.
Ladd (Eds.),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pp.15-45). New York: Wiley.
- Burks, V., & Parke, R. D. (1996). Parent and
child representations of social relationships:
Linkages between families and peers.
Merrill-Palmer Quarterly, 42, 358-378.
- Calkins, S. D. (1994). Origin and outcome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 regulation: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pp. 53-
72).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vol. 59, Issue. 2-3, serial
24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ohn, D. A. (1990). Child-mother attachment of
six-year-olds and social competence at school.
Child Development, 61, 152-162.
- Cohn, D. A., Patterson, C. F., & Christopoulos, C.
(1991). The family and children's peer
relation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 315-346.
- Cole, P. M., Michel, M., & Teti, L. O. (1994).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dysregulation: A clinical perspective.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 Development*, 59(2-3), 73-100.
- Contreras, J. M., Kerns, K. A., Weimer, B. L., Gentzler, A. L., & Tomich, P. L. (2000). Emotion regulation as a mediator of associations between mother - child attachment and peer relationships in middle childhood.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Vol 14(1), 111-124.
- Denham, S. A. (2007). Dealing with feelings: How children negotiate the worlds of emotions and social relationships. *Cognition, Brain, Behavior*, 11(1), 1-48.
- Doh, H. S., & Falbo, T. (1999). Social competence, maternal attentiveness and overprotectiveness: Only children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3(1), 149-162.
- Eisenberg, N., Fabes, R. A., & Spinrad, T. L. (2006). Prosocial development. In N. Eisenberg, W. Damon, & R. M. Lerner(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pp. 646-718).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Eisenberg, N., & Morris, A. S. (2002). Children's emotion-related regulation. *Advances in Child Development and Behavior*, 30, 189-229.
- Fabes, R. A., Eisenberg, N., Jones, S., Smith, M., Guthrie, I., Poulin, R., et al. (1999). Regulation, emotionality, and preschooler's socially competent peer interactions. *Child Development*, 70, 432-442.
- Gifford-Smith, M. E., & Brownell, C. A. (2003). Childhood peer relationships: Social acceptance, friendship, and peer network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1(4), 235-284.
- Gottman, J. M., & Katz, L. F. (1989). Effects of marital discord on young children's peer interaction and health.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73-381.
- Kail, R. V. (2006). *Children and Their Development*(4th ed). Prentice Hall.
- Kostelnik, M. J., Whiren, A. P., Soderman, A. K., & Gregory, K. M. (2009). 영유아의 사회정서발달과 교육. 박경자, 김송이, 권연희, 김지현(역). (주)교문사. (원본 발간일, 2009)
- Kupersmidt, J. B., Coie, J. D., & Dodge, K. A. (1990). The role of poor peer relationships in the development of disorder.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lation in Childhood*. N. 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dd, G. W., & Hart, C. H. (1992). Creating informal play opportunities: Are parents'and preschoolers' initiations related to children's competence with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1179-1187.
- Maccoby, E. E. (1980). Social development.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 Mikami, A. Y., Szwedo, D. E. Allen, J. P. Evans, M. A., & Hare, A. L. (2010). Adolescent Peer Relationships and Behavior Problems Predict Young Adults' Communication on Social Networking Websites. *Developmental Psychology*, 46(1), 46-56.
- Oh, S. Y. (1989, August). *Parental overprotection: Effects on self-concept and social and school functioning*.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 Association, New Orleans, LA, August 11-15.
- Parker, G. (1979). Parental characteristics in relation to depressive disorder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4, 138-147.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Putallaz, M., & Heflin, A. H. (1990). Parent-child interaction.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189-216).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se, C. M. (1991) Rethinking Environmental Controls: Management Strategies for Common Resources. *Duke Law Journal*, 1, 1-38.
- Rubin, K. H., Bukowski, W. M., & Parker, J. G. (1998).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 In W. Damon (Series Ed.) & N. Eisenberg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5th ed., pp.619-700). New York: Wiley.
- _____ (2006).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 In W. Damon, R. M. Lerner, & N. Eisenberg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6th ed., pp. 571-645). New York: Wiley.
- Saarni, C. (1999).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competence*. NY: The Guilford Press.
- Seibert, A. C. (2009). *Processes linking parent-child attachment and peer relationship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ent State University, OhioLINK.
- Shaffer, D. R. (1999). *Developmental Psychology*(5th ed); *Childhood & Adolescence*. Brooks/cole.
- Shields, A. M., & Cicchetti, D. (1995). *The development of an emotion regulation assessment battery: Reliability and validity among at-risk grade-school children*. Poster presental at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ndianapolis, IN.
- Shin, Y. (2007). Peer relationships, social behaviours, academic performance and loneliness in Korean primary school children.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8(2), 220-236.
- Silverman, I. W., & Ragusa, D. M. (1991). Child and maternal correlates of impulse control in 24 month-old children: *Correction, Genetic Social &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16(4), 435-473.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 (pp.290 - 312). Washington, DC: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 Thompson, R. A. (1994). Emotion Regulation: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 25-52.
- Tomkins. S. S. (1991). *Affect, imagery, consciousness*(Vol. 3). The negative affects: Anger and fear. New York: Springer.

Underwood, M. K. (1997). Peer social status a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expression and control of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Merrill-Palmer quarterly, Behavior and Development*, 43(4). 610-634.

1차 원고접수 : 2011. 7. 04

수정원고접수 : 2011. 8. 15

최종게재결정 : 2011. 8. 29

Maternal overprotection, child emotion regulation and peer relationships: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 regulation in children

Kim, Seong Hui

Chung, Ock-Boon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overprotection and child peer relationships, as mediated by emotion regulation in children.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comprised 479 fifth and six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Seoul.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maternal overprotection was partly related to emotion regulation in children. More specifically, excessive expectation, obstruction of autonomy, excessive control, and overprotection and anxiety on the part of the mother were negatively related to emotion regulation in children. Maternal overprotection was partly related to child peer relationships. Specifically, excessive control on the part of the mother was negatively related to child cooperation/empathy. Obstruction of autonomy by the mother was negatively related to child initiative, cooperation/empathy, and peer relationships. Excessive affection by the mother was positively related to child cooperation/empathy and peer relationships. The emotion regulation in children was seen to be related to peer relationships. More specifically, emotion regulation in children was observed to be positively related to child initiative, as well as to cooperation/empathy. Maternal overprotection had a direct influence upon child peer relationships and it was found to have an indirect effect via emotion regulation in children.

Key words : maternal overprotection, peer relationship, emotion regulation, mediating effect